

Issue Brief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No.77]

발행처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발행일 : 2023. 12. 20. | 발행인 : 문순덕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기업의 현황과 성과

선민정 연구위원 · 강문실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장

목 차

1. 들어가며
2. 전국 및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기업의 현황
3. 전국 및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성과
4. 시사점 및 지원방안



1. 들어가며

- 우리나라는 2021년 연간 근로시간이 1,915시간으로 OECD 36개국 중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¹⁾ 여전히 과노동사회라 비판받고 있음. 하지만 최근 근로자들은 일뿐만 아니라 가정, 여가, 교육 등 삶의 다른 영역에도 충분한 시간을 사용하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길 희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요구에 발맞추어 여성가족부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가족친화인증제도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인증해주는 제도임.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관)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가족친화인증을 해줌으로써 기업(관)을 통하여 일·가정 양립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이에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기업의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2. 전국 및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기업의 현황²⁾

1) 전국 및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수

- 전국은 2022년 기준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수는 5,415개임.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기업은 2008년에는 1개에서 10년 이후인 2018년에는 53개, 2020년에는 85개, 2022년에는 103개가 되었음

【 표 1 】 전국 및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 연도별 유효기업 현황

(단위 : 개사, %)

구분		가족친화인증 유효기업				비고 (신규인증기업)
		총계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등	
전국	2022년	5,415(100.0)	3,706(68.4)	591(10.9)	1,118(20.7)	897
	2022년	103(100.0)	72(69.9)	3(2.9)	28(27.2)	13
제주	2021년	92(100.0)	60(65.2)	4(4.3)	28(35.9)	13
	2020년	85(100.0)	56(66.0)	4(6.3)	23(35.9)	24
	2019년	64(100.0)	37(57.8)	4(6.3)	23(35.9)	11
	2018년	53(100.0)	27(50.9)	3(5.7)	23(43.4)	17
	2017년	36(100.0)	13(36.0)	3(8.0)	20(56.0)	16
	2016년	20(100.0)	6(30.0)	2(10.0)	12(60.0)	8
	2014년	12(100.0)	2(16.6)	2(16.6)	8(66.8)	5
	2008년	1(100.0)	-	-	1(100.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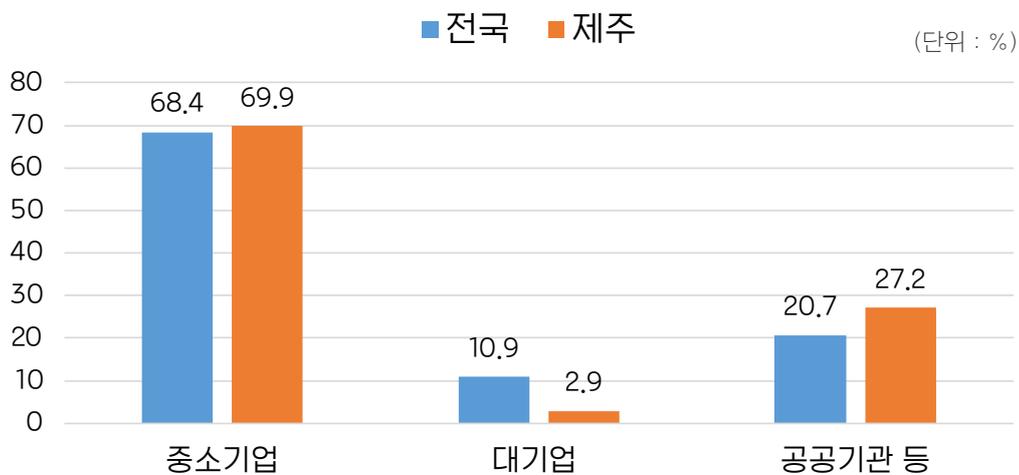
자 료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023.8.).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 내부자료.

1) NextDaily. “한국 노동시간, OECD 평균보다 199시간 길어...중남미 제외 최장”. 이호 기자. 2023.4.24.일자.
 2) 전국 및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기업의 현황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023.8.)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 내부자료를 참고하였음.

2) 전국 및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유형

- 전국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유형은 2022년 기준 중소기업이 68.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기관 등이 20.7%, 대기업이 10.9% 순으로 나타났음
-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유형은 2022년 기준 중소기업이 69.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기관 등이 27.2%, 대기업이 2.9% 순으로 나타났음

【 그림 1 】 전국 및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기업 유형(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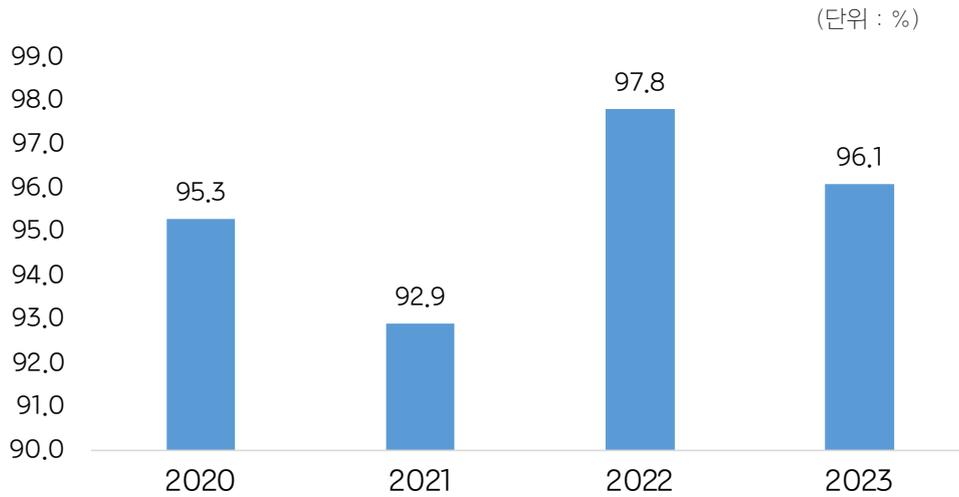
자료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023.8.).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 내부자료.

3)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인증유지율

-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관)은 2년 동안 인증이 유지되고, 2년이 종료한 후에는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하며, 재인증으로 3년 동안 인증이 유지됨. 즉 처음 인증을 받고 2년 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재인증을 받아야 하며, 재인증 유효기간은 3년임
-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가족친화인증유지율은 2020년에는 95.3%, 2021년에는 92.9%, 2022년에는 97.8%, 2023년에는 96.1%로 90%대 이상으로 나타났음. 이를 통해 기업(관)에서 가족친화인증을 받고 이후 재인증을 받아야 할 때 가족친화인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기업 중 재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관)을 면담한 결과, 가족친화제도 운영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과 관련 업무로 인한 실무자의 업무 부담이 커서 재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 또한 가족친화인증으로 인해 기업이 받는 혜택에 대한 실효성 부족 때문으로 나타났음



【 그림 2 】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인증유지율



자 료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023.8).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 내부자료.

3. 전국 및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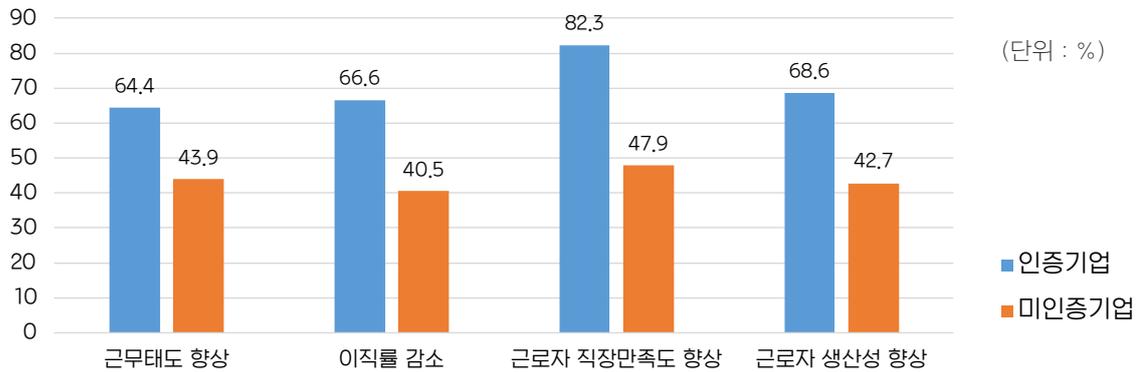
1) 전국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성과

- 전기택 외(2021) 연구는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과 상장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가족친화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음. 해당 조사결과 인증유무별 가족친화제도 시행의 성과는 아래와 같았음

(1) 전국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근로자 측면에서의 성과

- 전국 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유무별로 가족친화제도 시행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의 근로자 측면에서의 성과 차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전기택 외, 2021)
 - ‘지각·결근 감소 등 근로자 근무태도 향상’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응답(그런 편임+매우 그러함)한 경우가 가족친화인증기업은 64.4%인 반면 미인증기업은 43.9%로 20.5%p 더 높았음
 - ‘근로자 이직률 감소’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응답(그런 편임+매우 그러함)한 경우가 가족친화인증기업은 66.6%인 반면 미인증기업은 40.5%로 26.1%p 더 높았음
 - ‘근로자 직장만족도 향상’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응답(그런 편임+매우 그러함)한 경우가 가족친화인증기업은 82.3%인 반면 미인증기업은 47.9%로 34.4%p 더 높았음
 - ‘근로자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응답(그런 편임+매우 그러함)한 경우가 가족친화인증기업은 68.6%인 반면 미인증기업은 42.7%로 25.9%p 더 높았음

【 그림 3 】 전국 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유무별 가족친화제도 시행 성과(Ⅰ)(긍정적인 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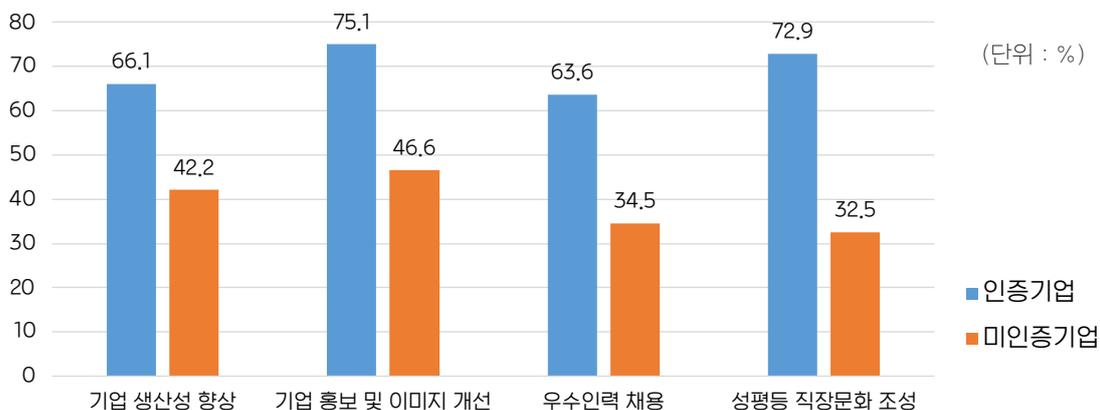


자료 : 전기택 외(2021). 「2021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여성가족부.

(2) 전국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기업 측면에서의 성과

- 전국 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유무별로 가족친화제도 시행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의 기업 측면에서의 성과 차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전기택 외, 2021)
 - ‘기업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응답(그런 편임+매우 그러함)한 경우가 가족친화인증기업은 66.1%인 반면 미인증기업은 42.2%로 23.9%p 더 높았음
 - ‘기업 홍보 및 이미지 개선’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응답(그런 편임+매우 그러함)한 경우가 가족친화인증기업은 75.1%인 반면 미인증기업은 46.6%로 28.5%p 더 높았음
 - ‘인력채용 시 활용(우수인력 채용)’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응답(그런 편임+매우 그러함)한 경우가 가족친화인증기업은 63.6%인 반면 미인증기업은 34.5%로 29.1%p 더 높았음
 -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응답(그런 편임+매우 그러함)한 경우가 가족친화인증기업은 72.9%인 반면 미인증기업은 32.5%로 40.4%p 더 높았음

【 그림 4 】 전국 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유무별 가족친화제도 시행 성과(Ⅱ)(긍정적인 기업 비율)



자료 : 전기택 외(2021). 「2021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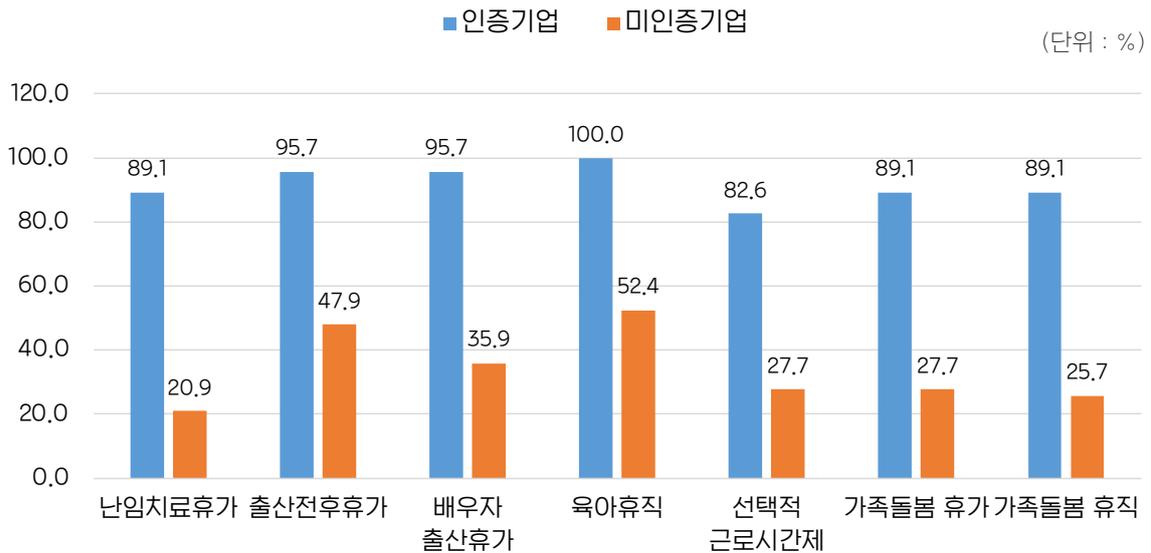
2)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성과

- 선민정 외(2022)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기업 447개를 대상으로 기업의 일·생활균형 실태와 정책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해당 조사결과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성과는 아래와 같았음

(1)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일·생활균형 제도 구비 성과

-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 유무별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가 있는 기업의 비율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미인증기업보다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를 더 많이 갖추고 있었음(선민정 외, 2022)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난임치료휴가가 있는 경우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89.1%로 미인증기업(20.9%)보다 68.2%p 더 높았으며, 출산전후휴가가 있는 경우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95.7%로 미인증기업(47.9%)보다 47.8%p 더 높았음.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는 경우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95.7%로 미인증기업(35.9%)보다 59.8%p 더 높았고,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100.0%로 미인증기업(52.4%)보다 47.6%p 더 높았음.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는 경우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82.6%로 미인증기업(27.7%)보다 54.9%p 더 높았으며, 가족돌봄휴가가 있는 경우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89.1%로 미인증기업(27.7%)보다 61.4%p 더 높았음. 가족돌봄휴직이 있는 경우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89.1%로 미인증기업(25.7%)보다 63.4%p 더 높았음(선민정 외, 2022)

【그림 5】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 유무별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가 있는 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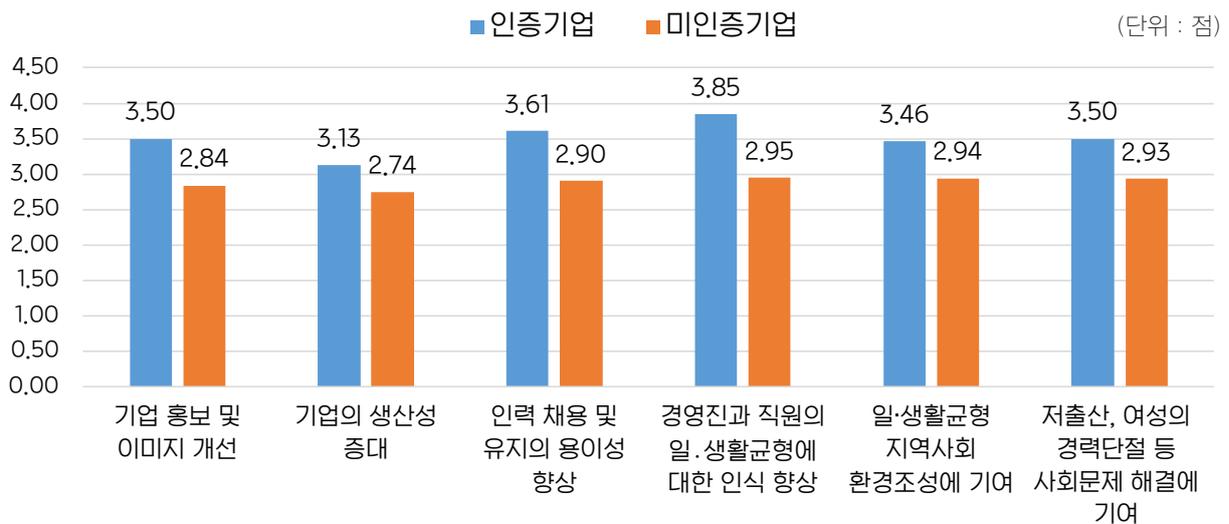


자료 : 선민정 외(2022). 「제주지역 기업의 일·생활균형 실태와 활성화 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 실행 성과

- 제주지역 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유무별로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를 시행한 이후 기업의 성과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미인증기업보다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 실행에 따른 성과가 더 높았음(선민정 외, 2022)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 시행으로 '경영진과 직원의 일·생활균형에 대한 인식 향상' 성과가 3.85점(5점 만점)으로 거의 있다고 나타났음. 이외에도 '인력 채용 및 유지의 용이성 향상' 성과가 3.61점, '기업 홍보 및 이미지 개선' 성과가 3.50점, '저출산, 여성의 경력단절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성과가 3.50점, '일·생활균형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기여' 성과가 3.46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에 미인증기업은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 시행의 성과가 모든 사안에서 3점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 보통 수준보다 약간 더 낮은 편으로 나타났음(선민정 외, 2022)

【그림 6】 제주지역 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유무별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 시행 성과



자료 : 선민정 외(2022). 「제주지역 기업의 일·생활균형 실태와 활성화 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 :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①전혀 그렇지 않음 ~ ⑤매우 그러함으로 구성됨.

4. 시사점 및 지원방안

-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기업은 미인증기업보다 일·생활균형 제도를 구비한 정도가 더 높았으며,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의 실행 성과도 더 높게 나타났음. 그렇기 때문에 제주지역 기업과 사회의 일·생활균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의 확대가 필요할 것임

1) 가족친화인증 사전 지원

- 제주지역의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규 기업 또는 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즉 기업 또는 기관이 가족친화인증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및 컨설팅이 필요함. 또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기관은 신규인증을 받을 때 100만원의 심사비용이 필요하기에 해당 기업 등에 대한 심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임

2) 가족친화인증 유지 지원

-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재인증을 받아서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유지율이 2023년 96.1%로 재인증을 받지 않는 기업이 나타나고 있음. 제주지역은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에서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큼. 뿐만 아니라 기업은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에 유익한 의미가 있어야 재인증을 지속해서 받으려 할 것임
- 따라서 가족친화인증 유지를 위하여 먼저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지원 및 유연근무제 등 일·생활균형제도 운영에 대한 컨설팅, 경제적 비용 일부 지원 등이 필요할 것임
- 이외에도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구체적으로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홍보해 주거나 금융 또는 세제공제 등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 발굴 및 제공이 필요함. 또한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혜택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는 휴양시설이나 의료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문헌 ■

선민정 · 박주영 · 강문실(2022). 「제주지역 기업의 일·생활균형 실태와 활성화 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전기택 · 박수범 · 신우리 · 김수진(2021). 「2021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여성가족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023.8.).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 내부자료.
NextDaily. “한국 노동시간, OECD 평균보다 199시간 길어...중남미 제외 최장”. 이호 기자. 2023.4.24.일자.